최근 양돈경기 동향과 2003년 전망

김 동 성 상무
(대한양돈협회)

2003년 새 해가 밝았다. 작년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로 '홍역'을 넘어서 '전쟁'을 치른 양돈농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2003년 새 해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올해는 양돈업계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이루어져 안정된 가운데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길 전 양돈인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2003년 양돈산업에 대해 전망해 본다.

1. 돼지 사육동향과 전망

가. 돼지 사육동향

2002년초 양돈농가들은 2001년 11월 구제역 청정국 인증, 12월 1일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전면중단 등으로 조성된 대일 돼지고기 수출 재개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새 해를 출발했었다. 연초만 해도 대일 수출재개는 따논 당상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래서 양돈농가들도, 육가공업체들도 수출에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양돈농가들은 2001년 후반부터 돼지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왔고, 육가공업체들도 바이어와 접촉하는 등 분주했다.

그러나 이같은 꿈은 4월 중순과 5월 초에 재발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으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수출에 대비해 늘린 모돈은 계속 새끼를 낳을 수 밖에 없었고, 사육두수도 늘어나기만 했다.

그 결과 2002년 9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033천두로 1년 전보다 3%(266천두) 늘어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모돈두수도 956천두로 0.5%(5천두) 증가했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작년에 구제역 발생(16건)으로 발생농장과 인근의 162농가에서 총 15만8천706두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돼지콜레라로 약 2만5천두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로 살처분되지 않았다면 돼지 사육두수는 9백20만~9백30만두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처분 농가들의 희생으로 돼지 사육규모가 일부 조정되어 양돈불황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한

〈표 1〉 돼지 사육두수 변동 추세

구 분		'00.9	12	'01.3	6	9	12	'02.3	6	9
사육호수		23,511	23,841	22,444	21,251	20,141	19,531	18,641	17,382	16,930
총 두 수		8,371	8,214	8,198	8,396	8,767	8,720	8,719	8,791	9,033
월령별	2개월 미만	2,507	2,413	2,471	2,593	2,689	2,594	2,665	2,694	2,752
	2~4개월령	2,793	2,765	2,684	2,754	2,851	2,889	2,862	2,879	2,955
	4~6개월령	2,087	2,071	2,081	2,055	2,228	2,232	2,183	2,208	2,324
	6~8개월령	76	74	78	85	77	80	84	81	73
	8개월 이상	908	891	884	909	922	925	925	929	929
모돈수	6~8개월령	66	62	66	73	69	71	72	66	63
	8개월 이상	866	850	844	868	882	884	886	892	893
	계	932	912	910	941	951	955	958	958	956

것은 남아있는 농가들로서는 큰 득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육규모는 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돼 사육호수는 17천호로 1년 전보다 15.9%(3,210호)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호당 사육두수는 534두로 크게 늘었다.

규모별 돼지 사육두수는 500두 미만이 12.2%(1,103천두)로 1년 전의 14.2%(1,251천두)보다 2% 포인트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한 500~999두 규모도 19.8%(1,734천두)에서 17.8%(1,604천두)로 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000~4,999두 규모는 50.6%(4,432천두)에서 53.9%(4,872천두)로 3.3% 증가했고, 5,000두 이상도 15.4%(1,350천두)에서 16.1%(1,454천두)로 0.7% 포인트 늘어났다. 수치에서 보듯 2002년에는 1,000두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는 크게 감소한 반면, 전기업규모인 1,000두 이상의 농가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전기업화가 더욱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육두수의 증가 현상을 반영해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0월까지 4,877천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젖먹이용이 1,652천톤으로 8.8% 늘어났고, 육성용이 2,277천톤으로 9.5%, 모돈용이 921천톤으로 4.3% 증가했다.

나. 2003년 돼지 사육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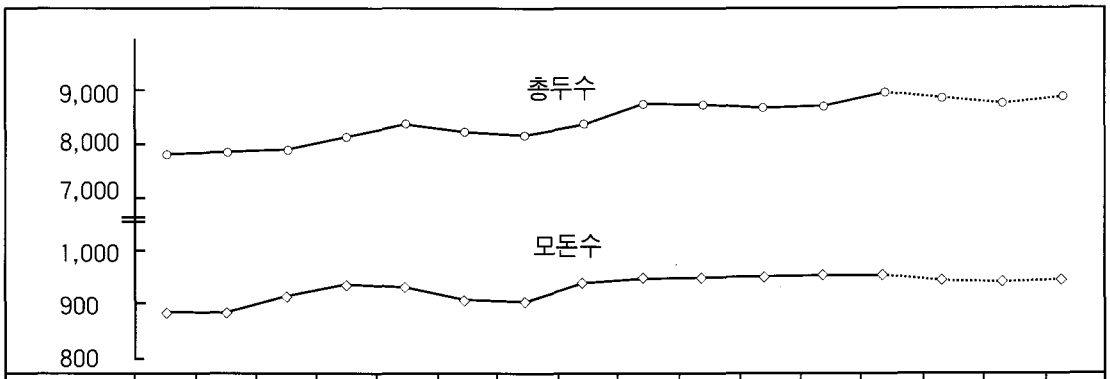
돼지 사육두수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가 불발로 끝나고, 그 여파로 9월부터 12월까지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사육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더군다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양돈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작년 11월 농경연이 586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사육의향을 조사한 결과 사육규모를 '현상유지하겠다'는 농가가 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육규모를 '늘리겠다'는 농가가 8%, '줄이겠다'는 농가가 10%로 나타나 여느 해와 달리 '줄이겠다'는 농가 비율이 더 많았다.

실제로 작년말 양돈농가들의 움직임을 보

〈표 2〉 돼지 사육호수 및 두수 전망



구 분	99.9	12	'00.3	6	9	12	'01.3	6	9	12	'02.3	6	9	12	'03.3	6
총두수(천두)	7,813	7,864	7,887	8,126	8,371	8,214	8,198	8,396	8,767	8,720	8,719	8,791	9,033	8,910	8,845	8,960
모돈수(천두)	884	887	914	936	932	912	910	941	951	955	958	958	956	953	952	954
사육호수(천호)	24.4	24.4	24.2	24.6	23.5	23.8	22.4	21.3	20.1	19.5	18.6	17.4	16.9	16.2	15.6	15.0

더라도, 후보돈 입식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뚜렷해 후보돈 가격이 연초에 비해 10% 내외 하락했다. 양돈농가들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사육시설 계획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도 많았다.

2003년의 돼지 사육두수는 일부 농가의 돼지고기 수출재개 기대감과 소값 강세에 따른 돼지고기 대체소비, 외국 연수생제도의 양돈장 도입에 따른 인력난으로 증가요인도 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 감소와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사육의욕 감소, 분뇨처리난, 장기간의 양돈불황에 따른 경영악화, 방역의무 부과로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감소요인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돼지 사육두수는 작년 9월을 9,033천두를 피크로 12월과 금년 3월에는 9월보다 2% 내외로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양돈 여건에 따라 6월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월에는 8,910천두, 금년 3월은 8,845천두, 6월은 8,960천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가격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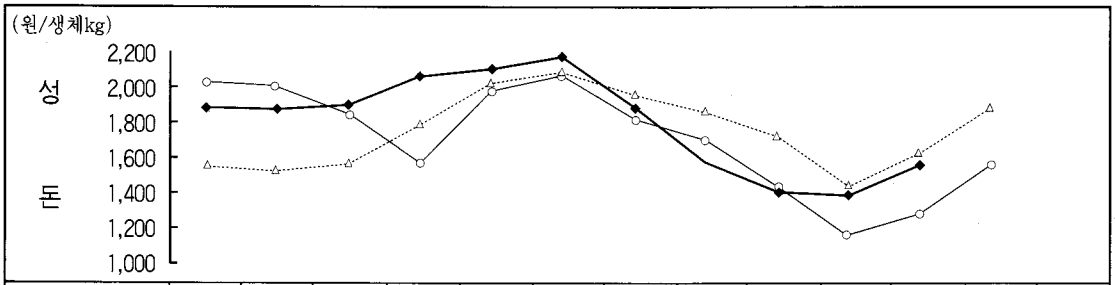
가. 돼지고기 소비동향

2002년은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 불발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소비 덕분에 전년보다 평균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10% 가량 늘어난 공급량(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잘 처리한 해였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작년 10월까지 도축두수는 12,557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7.6%나 증가했다. 도축 체중도 평균 107kg으로 2000년과 2001년의 108kg, 106kg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돼지고기 수입량(검역기준)은 11월까지 67,444톤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44.8%나 늘어났다. 상반기의 국내 돼지값 강세와 EU의 수입금지 해금의 영향이 컸다. 삼겹살이 전체 수입량의 72.2%를 차지했고, 목심을 합할 경

〈표 3〉 돼지 산지가격 동향



구	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성 돈 (원/생체 kg)	00(A)	2,030	2,000	1,840	1,570	1,980	2,070	1,810	1,680	1,410	1,150	1,270	1,530	1,695
	01(B)	1,550	1,550	1,560	1,780	2,030	2,080	1,950	1,850	1,710	1,420	1,620	1,870	1,745
	02(C)	1,880	1,870	1,890	2,060	2,090	2,170	1,870	1,570	1,390	1,370	1,530		1,790
	B/A,%	△23.6	△24.0	△15.2	13.4	2.5	0.5	7.7	10.1	21.3	23.5	27.6	22.2	2.9
	C/B,%	21.3	23.0	21.2	15.7	3.0	4.3	△4.1	△15.1	△18.7	△3.5	△5.6		4.7
자 돈 (천원/두)	00(A)	62	63	62	55	60	61	58	55	50	44	41	46	55
	01(B)	48	48	49	52	61	64	64	59	57	51	53	59	55
	02(C)	60	61	62	65	68	69	65	57	51	49	50		60
	B/A,%	△22.6	△23.8	△21.0	△5.5	1.7	4.9	10.3	7.3	14.0	15.9	29.3	28.3	0.5
	C/B,%	25.0	27.1	26.5	25.0	11.5	7.8	1.6	△3.4	△10.5	△3.9	△5.7		11.2

우 83.3%를 차지했다.

나. 돼지가격 동향

2002년 돼지가격은 왕성한 소비가 수출재개 불발에 따른 공급량 증가분을 잘 소화해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성장률 상승과 건축경기 활황, 월드컵 등 국제행사는 돼지고기 소비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돼지값은 1/4분기 18만원대, 2/4분기 20~21만원대의 고가를 기록한후, 수출재개 불발에 따른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빠른 7월 하반기 이후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결과 7월에 18만7천원, 8월 15만7천원으로 떨어진후 9월과 10월에는 13만9천원, 13만7천원으로 주저앉았다. 생산비에서 약 2만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후 11월에 반등세를 보여 15만3천원까지 회복한후 12월에도 15만원대 내외를 오르내렸다.

그 결과 2002년의 산지 돼지값은 17만7천원을 기록, 전년의 17만4천원보다 1.7%(3천원)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또한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가격도 2,650~2,660원을 형성, 전년 평균가격 2,624원보다 1.3% 상승했다.

11월 이후 돼지가격이 2,300원대로 회복한 것은 TV와 라디오광고를 비롯한 시식회 등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과 육가공업체의 선구매·비축, 강화·김포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 2003년 돼지가격 전망

2003년의 양돈경영 여건은 국내외 각종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가 뒷받침되었던 작년에 비해 금년은 경제성장률이 1.3~1.5% 포인트 하락한 4.5~

〈표 4〉 2003년 일반경제전망

○경제 성장률 : 4.5~5.2%(2002년 대비 1.3~1.5% 포인트 하락) - 경기 둔화
○민간 소비 : 4.5~5.0%(2002년 대비 2.2~2.4% 포인트 감소) - 내수 감소
○소비자 물가 : 3.6% 상승(2002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 - 물가 상승
○경상 수지 : 19.1억달러(2002년 대비 28.6억달러 감소) - 흑자폭 감소
○원/달러 환율 : 1,150원(2002년 대비 7.1% 하락) - 환율 하락

5.2%로 예상되고, 민간소비도 2.2~2.4% 포인트 하락한 4.5~5.0% 증가에 머물러 내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0.7% 포인트 증가한 3.5%로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19.1억달러로 전년보다 28.6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환율은 7.1% 하락한 1,150원으로 예상돼 국제 곡물가 상승분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업계는 금년 국제 물가는 전년도 전반기 대비 약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4~5%의 사료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돼지 사육두수는 상시두수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약 1~2%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축두수도 2~3% 증가한 1,550~1,560만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돼지가격의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4% 증가한 8만2천톤(검역기준) 내외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EU 제국 대부분이 작년에 수입금지가 해금되었고, 국제 돈가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수출은 우리나라가 작년 11월에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돼지콜레라만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이후 대일 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의 협상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로서 정확히 언제부터 수출재개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내에 수출재개가 이루어질 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년에는 사육두수 조절에 따른 출하물량 증가율 미미, 한우 및 수입쇠고기값 상승에 따른 일부 소비 대체 현상 등 가격 상승요인도 일부 있으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내수감소, 국제 돼지가격 약세 지속,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대일 수출재개 불투명 등 하락요인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년 2003년에는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국내 공급량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둔화와 내수감소로 돼지고기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돼지 지육 평균가격(전국 기준)은 작년의 2,660원(추정)보다 4.1% 하락한 2,550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 성돈 평균가격으로는 17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분기별로는 1/4분기가 2,470원, 2/4분기 2,930원, 3/4분기 2,550원, 4/4분기 2,250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7월이후 대일 수출이 재개될 경우 평균 130원 상승한 2,680원으로 작년보다 1% 내외 상승할 전망이다.

아무튼 금년은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사료

〈표 5〉 2003년 돼지 가격 전망

○A안(수출 재개 안될 경우 지육가) : 2,550원(전국) - 금년보다 4.1% 하락 전망
- 분기별 돼지 지육가 전망(전국 기준)
• 1/4분기 : 2,470원, 2/4분기 : 2,930원, 3/4분기 2,550원, 4/4분기 : 2,250원
※2002년 평균가 : • 도매가 2,660원 추정(전국) - 전년 2,624원 대비 1.4% 상승
• 산지가 177천원 추정 - 전년 174천원 대비 1.7% 상승
○B안(수출 재개될 경우 - 7월 이후) : 2,680원(전국) - 금년보다 0.6% 상승
- 7월 이후 수출 재개될 경우 평균 지육가 130원 상승 예상

가격도 상승하는 등 양돈경영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돈농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생산계획과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17년만에 입법된 의무축산자조금법이 본격 시행되고, 축산업등록제 부활, 방역의무조항 신설, 등급판정수수료 부과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전과는 다른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양돈